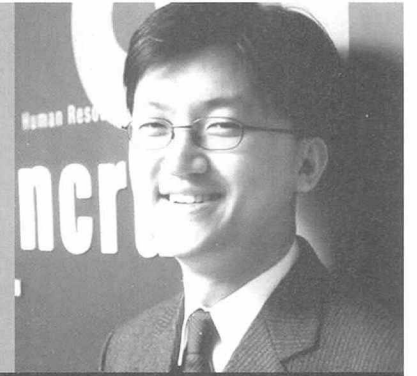


## HR(Human Resource)

## 마케팅을 시작하라



## 인크루트 대표 이광석

2007년 정해년(丁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 모두의 새해 소망은 아마도 '직장구하기'가 아닐까 한다. 안타깝게도 올 취업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고유가, 환율, 북핵문제, 경제불안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7% 이상 줄여놓고(인크루트 조사결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수인재 확보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노력은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이 '인재'에 달려있음을,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있는 기업은 바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다. 근무조건이 좋은 대기업 선호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는 공기업 취업 열풍이 불었다.

반면 한때 대기업 인재들의 인력이동 붐이 일었던 '벤처기업'의 인기는 추풍낙엽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크루트가 '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벤처기업을 꼽은 취업준비생은 불과 1.5%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기 업종에서는 'IT기업'의 비중이 단연 앞섰다는 점이다. 또 일부 인터넷업체의 인기는 상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업간 선호 편차가 심한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벤처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높은 업무강도'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임금' '불투명한 비전'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업종 가운데 이직률이 가장 높기도 하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벤처기업에게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열정과 도전, 꿈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벤처신화를 만들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벤처기업들은 어떤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로라하는 굴지의 기업들은 왜 인재 채용과 육성, 관리에 해마다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들이고 있는가? "열정과 도전을 가진 인재는 누구나 오라"고 말로만 외쳐서는 요즘의 젊은 인재들을 끌어올 수 없다.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사만의 어떤 가치,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 벤처기업의 채용에 대해 "아랫돌을 빼 윗돌 핀다"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간 경력자 인재 쟁탈을 빚댄 말이다. 이는 곧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작은 기업을 큰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젊은이다운 패기와 도전정신이 요즘의 젊은 층에게 부족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벤처기업부터 자사만의 기업가치와 인재에 대한 투자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의 가슴에 열정의 불을 지펴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PR이 아닌 HR(Human Resource)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인크루트(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와 국내 최고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서비스 NST(www.nst.co.kr)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HR 전문 기업입니다.